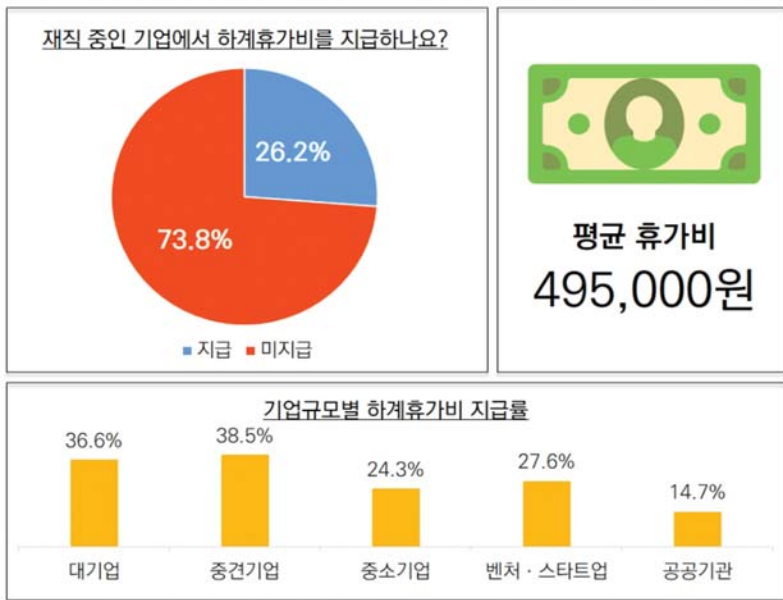


기업 10곳 중 2곳 '여름 휴가비' 지급

기업 10곳 중 2곳만 평균 49만 5천 원의 여름 휴가비 지급



Incruit X 알바콜

10곳 중 2곳 정도의 기업에서만 직원들에게 여름 휴가비를 준 계획을 하고 있었다. 또 기업들이 지급하려고 하는 평균 여름 휴가비는 약 49만5000원 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기업 499곳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비 지급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26.2%만이 '휴가비를 준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30만원~50만원대 최다...평균 49만5000원
2005년에 비해 48% 인상...100만원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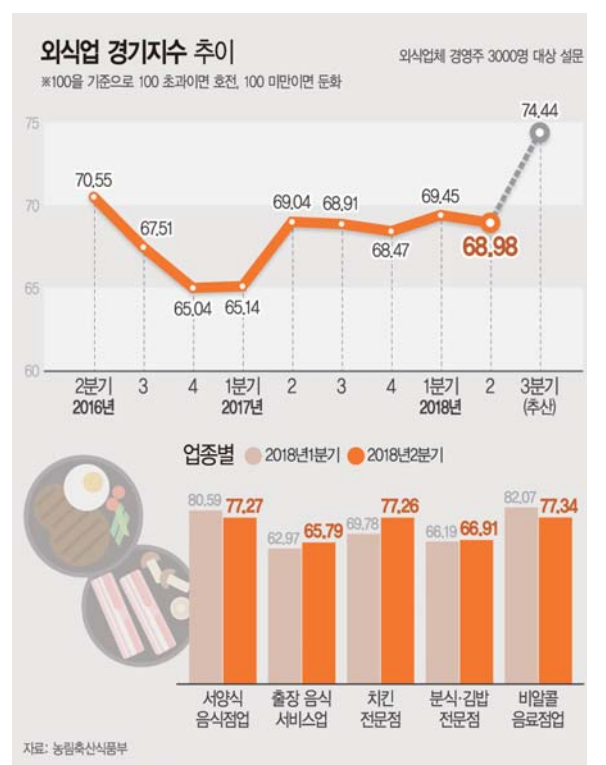
"주지 않겠다"는 곳은 73.8%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지급계획이 3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기업(36.6%), 벤처/스타트업(27.6%), 중소기업(24.3%) 순이었다. 기업들이 지급하려는 평균 휴가비는 약 4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여름 휴가비 지급구분별로는 지급액이 50만원대(25%)와 30만원대(24%)가 가장 많아 전체 기업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100만원대(11%), 10만원대(10%) 등의 순이었다. 한편, 여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총 56.4%에 달했다. 실시하지 않는 곳은 43.6%로 기업 10곳 중 절반 이상이 기본 연차 외 별도로 여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여름휴가(=하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며, 현재 노동

법상 기업에서 하계휴가를 위해 연차 외 별도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인크루트가 2005년에 대기업 125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름 휴가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시 전체 응답 기업의 32%가 휴가비를 준 계획이라고 밝혔고, 평균 여름 휴가비는 33만8000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10년이 훌쩍 지난 현재와 비교해 보면, 대기업 기준으로는 4.8%포인트 여름휴가 제공 비율이 늘었다. 여름 휴가비의 경우 약 48%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머영 인크루트 대표는 "사업장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불황과 경기 악화 속에서도 기업에서 여름휴가를 실시하고 휴가비를 꾸준히 늘려온 점은 고무적"이라며 "임직원들의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월드컵 특수' 치킨집만 웃었다

농식품부·aT, 2분기 외식업 경기전망지수...영세 외식업 한파

외식산업 경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특히 제과점·김밥 전문점과 같은 영세 외식업의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반면 2018 러시아 월드컵 특수로 치킨집만 웃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KRBI)는 68.98로 전분기(69.45)보다 0.47포인트 하락했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최근 3개월간(현재) 및 향후 3개월간(미래) 외식업계의 매출과 체감 전망을 외식업체 경영주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치인 100을 초과하면 경기호전을, 100 미만일 때는 경기둔화를 의미한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은 1분기만이다. 지난해 2분기 69.04에서 3분기 68.91, 4분기 68.47로 2분기 연속 내렸다가 올 1분기에 69.45로 회복권(변동 폭이 극히 소폭인 상태)에서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무도유희 주점업(54.58)의 경기지수가 가장 낮았다. 출장음식 서비스업(65.79)과 분식 및 김밥전문점(66.91), 제과점(71.4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74.34), 치킨전문점(77.26) 등도 낮은 편에 속했다. 뉴시스

대부분 영세업체다. 다만 치킨전문점의 경우 전분기(69.78)보다 7.48포인트나 올랐다. 6월 말 월드컵 특수 영향이 컸다는 게 농식품부 측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62.35)와 울산광역시(63.25)의 경기가 타 시·도에 비해 나쁜 편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73.77)와 세종특별자치시(72.93)는 상대적으로 좋았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올 3분기는 2분기보다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3분기 전망지수는 74.44였다. 특히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74.34~81.94)과 치킨전문점(77.26~81.13)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시스

한국소비자원 "시중 어린이 매트 3개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디자인스킨·파크론·베베앙 등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매트 9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풀더형 어린이 매트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에서 휘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물질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3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상 현행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은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와 파크론의 '퓨어공간풀너 200P'다.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는 폼아미드 방출량 4.74 mg/(m²·h), '퓨어공간풀너 200P'는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 0.60 mg/(m²·h)였다. 폼아미드는 점막 접촉시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기준치는 0.20 mg/(m²·h) 이하다. 2-에틸헥소익에시드는 점막 자극성이 있고 중장기적인 노출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기준치는 0.25 mg/(m²·h) 이하다. 나머지 1개 제품인 베베앙의 '뉴티뷰드매트 210'은 N,N-다이메틸폼아미드 방출량이 2.18 mg/(m²·h) 검출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이 제품은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N-다이메틸폼아미드는 현기증, 수면장애, 고혈압을 유발하며 간독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현행 안전 기준은 0.40 mg/(m²·h) 이하다. 디자인스킨과 파크론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통해 판매금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베베앙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환급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음 저감 성능과 충격 흡수 성능, 내구성 등도 시험했다.



시험 대상인 9개 제품은 모두 가볍고 딱딱한 소리인 '경량 충격음'에 대한 저감 성능은 있었으나, 아이가 뒹 때 나는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경량 충격음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경량 충격음 저감 성능은 전 제품이 46dB ~ 48dB 수준이었다. 해당 저감량은 전기믹서기 가동 소음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야"

주요 경제단체들이 9일 내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이 같은 경영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입장문을 통해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수 증가 폭 등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년 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맞추기에 급급했던 소상공인들은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려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뉴시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